

2016년 4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6.4.29(금) 14:30~15:3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심층성, 공정성 확보하고 차별화 노력 필요

- 선거보도는 매우 중요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유권자의 반응을 코멘트 받아서 방송하는 것은 좋았다고 생각함. 아쉬운 점은 조금 더 많았으면 함 관심을 많이 받았던 지역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유권자의 반응을 들어보았으면 좋았을 것. 타사에 비해 선거 결과를 상단에 조그맣게 표를 생상별로 띄워 놓은 것은 인상적이었음(이태식 위원장)
- 뉴스 1번지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 (황장수, 서양호, 이종훈, 김미현)의 과거 경력이 야당(새천년 민주당, 통합민주당 등)에서 활동하여 시청자 입장에서 편향된 시각에서 정치관련 논평을 한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으므로 패널들의 정치 경력이 여야 균형을 이루어야 공정보도를 담보할 수 있음(신현택 부위원장)
- 모든 방송사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비리관련 보도내용에서 특정시장은 지금까지 모든 지역단체장이 구속됐었다고 나왔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파헤쳐 심도 있는 보도가 되면 좋을 것(김용직 위원)
- 20대 국회 총선 관련 보도에서 거의 모든 방송사가 20대 총선 관련내용을 편성(또는 생방송)하여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연합뉴스 TV만의 차별화된 내용(구성)을 방송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김상선 위원)
- '고성국의 담담타타' 프로그램은 타 방송사 대담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진행자(고성국)의 너무 많은 의견, 분명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초청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연스러운 진행보다는 진행자가 이끌어가는 듯 한 느낌을 주게 됨. 어떤 방식이 꼭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사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매력적인 진행방안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됨(김상선 위원)
- 그동안 지상파를 비롯한 종편에서도 단편 드라마 형식을 빌려 많은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 보도해 왔지만, 연합뉴스TV만이 가지고 있는 뉴스전문채널이라는 장점을 살려,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호소력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뉴스전문채널의 특성을 일층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함(박성열 위원)
- 2일 세계자폐인의날 푸른등켜기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작게 했음. 각 나라별로 하는 행사가 있을 텐데 이런 내용을 다뤄본다면 연

합뉴스TV 특징이 될 수 있음(김용직 위원)

- 총선보도에서 보도의 초점이 너무 정치인과 정당에만 집중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매체의 보도노력이 크게 부족한 점이 있는데 연합뉴스TV에서 이 영역을 더 적극적으로 개척해 가면 인지도도 올리고, 한국민주주의의 토대도 다질 수 있으리라 생각함(이재경 위원)

▲ 보도의 역할과 중요순위 고민해야

- 2일 '뉴스18' 세계자폐인의 날 보도 내용에서 2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자폐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배경과 자폐성장애의 특성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됨. 이번 보도는 기념을 위한 행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UN에서 세계자폐인의 날을 제정한 진정한 목적과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이 간략히 밝힌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진정한 어려움과 고통을 전달하기에는 언론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경시한 지나친 연성 뉴스였다고 생각됨(박성열 위원)
- 대구에서 발생한 장애인시설 대표와 원장이 장애인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장애인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 보도는 잘했지만 화면 처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 같이 이런 장애인 시설장들에 의한 보조금 횡령 사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의 목소리가 심층 보도 되어야만,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박성열 위원)
- 3월 26일자 이시간 핫뉴스로 나오는 내용이 경찰관이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강등됐다는 내용과 3월 29일 인질극 피해여성 관련 보도도 사회면 뉴스에서 반복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반면 사회적인 관심을 같아야 할 중요한 뉴스는 보도 순위에서 밀려 맨 마지막에 나왔음. 순위 설정에 신경써야 함(이태식 위원장)

▲ 화면구성, 자막, 부적합표현 주의

- 26일 뉴스 1번지 또는 뉴스워치 프로그램에 "여 옛 소장파 다시 주목" 이란 리포트가 있었는데 초기 화면에는 남경필지사와 경기도 출신 당선인들의 모임 장면이 나와 보도내용과 화면이 완전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가짐. 그 전날 있던 민본21출신 소장파 모임을 먼저 보여주고 다음 남, 원, 정 등 과거 소장파들의 근황 화면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사료됨(신현택 부위원장)
- 좌측 하단에 연합뉴스TV 채널23번, 해당 프로그램 이름(예: 뉴스현장 13, 뉴스현장 14, 뉴스1번지, 뉴스워치 등), 현재시간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표기하고 있는데, 연합뉴스TV와 채널23번의 경우는 시청자들이 기억하도록 반복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모든 프로그램 이름을 이런 식으로 강조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특히, '뉴스다이제스트'와 '고성국의 담담타타' 프로그램의 경우는 연합뉴스TV, 채널23번 표식 없이 프로그램 이름을 표

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를 포함시킨 일관된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김상선 위원)

- 전반적으로 속보를 중요시하는 특성은 이해하지만 빨간색 자막이 과도하게 많이 노출됨. 특히 속보자막이 나왔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화면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음. 빨간색 자막이 너무 많아서 시각적으로도 어지러움(주철환 위원)
- 외신이거나 제보영상이거나, 과거 자료화면, CCTV영상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화면에 영상자료의 출처 밝히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음. 시청자가 현실과 착각할 가능성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세심하게 써주면 좋겠음(이재경 위원)
- 13일 야권 연대 관련 원로들 성명 발표 관련 내용에서 자막에는 전 부총리 자막으로 표시됐음. 하지만 전 부총리의 내용이 주가 아님에도 시청자들은 자막으로 인해 전 부총리의 발표가 주된 내용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 13일 S그룹의 영업이익이 4조 원대라는 앵커의 멘트에는 자막에는 4억 원으로 나와서 맞지 않아 아쉬웠음.(이태식 위원장)
- 정치가 주요 관심대상이긴 하지만 정치뉴스 외에 다른 뉴스를 보고 싶어 하는 시청자도 있을 것임. 과도하게 정치에 치우친 뉴스가 구성됐음. 특히 특정당, 비대위 회의 종료 등의 정치 속보자막이 너무 많이 들어감. 각 당의 세세한 내용까지 시청자들이 모두 속보자막으로 알아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음(주철환 위원)
- 3월 26일 특정 당대표의 유세보도에서 광폭행보, 광폭유세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적절한 것인지 의아했음. 외무성이 제재 후에 첫 '방미' 라는 표현에서도 첫방미가 맞는지 'UN방미'가 맞지 않나 싶음. 2~30대 취업자가 50세 이상에 추월당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아니면 2~30대 취업자가 50세 이상에 뒤졌다고 표현해야 맞는지 의문임. 12일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관련 보도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0591%라고 했는데 이정도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일반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보완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태식 위원장)
- 3월 26일 '뉴스초점' 중 '노후파산 현실로' 보도 내용에서 앵커의 질문중 ~에 답하시는 트러스트자산운용 연금포럼 강창희 대표의 말씀 중 '요즘 많이 떠들고 있는~' 이라고 단어가 순화되지 않아 시청자로서 듣기가 거북 했었던 점을 지적함(박성열 위원)
- 선거방송에서는 특별한 준비 없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함. 지상파들이 화려한 CG와 스토리를 입힌 것과는 대조됨. 개인적 취향은 담담한 방송이 마음에 들었으나, 대중적으로 화려한 그래픽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함. 예산문제이나 아쉬웠음(정현주 위원)

▲ 앵커, 기자 관련 의견

- 앵커. 리포터들의 보도과정에서 표준어를 사용해서 우리 언어를 순화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음. 저녁 뉴스 남자 앵커는 발음이 부정확해서 전체적인 전달이 원활히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두 개의 복합단어를 발음할 때 어느 곳을 강조해서 발음해야 할 것인지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음 발음과 억양에 주의가 필요함. '북한은 오늘' 프로그램에서 뉴스를 전달해주는 여성 앵커가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나와 북한의 실상을 보도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음(이태식 위원장)
- 뉴스앵커들이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너무 어림. 연륜이 있는 앵커가 저녁시간대 외부인사인 고성국씨 외에는 전혀 없어서 전반적인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됨. 어린 앵커와 연륜 있는 앵커를 골고루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신입 아나운서로 추정되는 앵커들의 표정과 분위기가 많이 어두움. 실수하는 경우도 많아서 전반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판단됨. 많은 연습 뒤에 실전에 투입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여겨짐(주철환 위원)
- 기자 수가 부족한 점이 너무 눈에 보임. 스포츠부로 추정되는 기자가 정치 리포트를 한다든지 사회부로 보이는 기자가 경제리포트를 한다든지 해서 뉴스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임. 인력이 부족한 건 알지만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임(주철환 위원)
- '고성국의 담담타타' 진행자의 태도가 거슬리는 경우가 있음. 패널의 말을 짜르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듯 느껴지는 때도 있음. 진행자가 판단하는 말이 많은 듯하다. 그러나 정국의 해법의 경우는 이런 경향이 덜한 듯함(정현주 위원)

▲ 프로그램 제안, 긍정 및 기타 의견

- 6일 봄철 졸음운전사고가 많다는 내용은 매우 좋았으며, 기본적인 운전의 소양과 과 예의에 관련되는 교양프로그램을 편성해 보면 좋을 것(이태식 위원장)
- 공익적인 방송입장에서 연구 현장이나 기업현장관련 재미있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제작한다면 좋을 것(김상선 위원)
- 소수 계층을 배려하는 뉴스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강하지는 않지만 호소력이 있는 앵커나 현장기자의 감성적 표현도 필요하다고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함(박성열 위원)
- 교통관련 프로그램이나 기초과학 관련 연구소 내용을 시리즈물로 제작한다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부합하며 수화방송에도 조금 더 신경 써 주면 좋을 것(김용직 위원)
- 주말이면 고속도로 상황을 전화연결로 반복적으로 내보내는데 요새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통정보가 바로 확인되는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임. 차라리 주말 스케치 등 부드러운 리포트를 주말에 늘리는 편이 나올 것으로 보임(주철환 위원)
- 각 방송사별로 선거관련 보도에서 특정 당에 대해 치우치는 경우가 있곤 하는

데 연합뉴스TV는 상당히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았음. 총선관련 총평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여론조사 뉴스 관련 내용이 실효적이었는지 평가해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봤으면 좋을 듯함(박정숙 위원)

- 내수활성화를 위해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고, 5.1일부터 14일까지 '봄 여행주간'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음. 전국의 다양한 지역축제와 할인행사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임. 지역별 볼거리와 먹거리, 숙박 등을 소개하는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여행과 풍경>의 특집 편으로 편성해도 괜찮을 것으로 봄(박동민 위원)
- 주말에 방송되는 기업기상도는 경기보다 기업에 주목한다는 취지를 잘 살림. 방송뉴스가 정치, 사회의 대형 이슈만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울고 웃는 기업의 속사정을 조명한다는 점이 신선함. 또한 흐름기업의 잘못에 날리는 따끔한 일침에 후련함을 느끼는 시청자도 많을 것임. 다만, 선정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고, 맑음과 흐름의 기준이 단기적인 실적이나 이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면이 있음. 또한 현재 상황과 '미래예측'을 담는 것이 기상도라는 면을 고려할 때 지난 한주간의 희비만 아니라 앞으로 1주간 울고 웃을 기업을 예측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함(박동민 위원)
- 포토뉴스는 지루한 뉴스와 뉴스사이에 청량음료와 같음. 이 부분 더 늘려주었으면 함(정현주 위원)
- 20일 '라이브투데이 2부' 갈 길 먼 장애인차별금지법 보도 내용에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한 시의 적절한 보도 내용이라고 생각함. 장애인단체들이 사무실, 센터 계약을 할 때, 한 번 짚은 겪어 본 사실들과 장애인이나 단체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짧게나마 보도를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함. 더민주당의 비례대표 최동익의 의원의 '원인분석과 예방개념'에 대한 보도 및 20대 국회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의 보도도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느낌임(박성열 위원)
- 앵커와 뉴스리포트의 오디오 음량이 각각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잘 맞추어서 매끄럽게 들리도록 할 필요가 있음. 뉴스 뒤 배경에 보도국 전경이 보이는 경우 우리가 투명하지 않고 청결하지 못할 때가 있음 개선이 필요함(박정숙 위원)
- . (끝)